

지역 소식통

고창군 가을철 산불 방지 비상근무 체제 돌입

고창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1명, 감시원 56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했다.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를 입차 운영하고 산불감시무인카메라 10대도 가동한다.

특히 군은 가을철 산불 대부분이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산불취약지 8294ha와 등산로 10개 노선 80km는 입산이 통제된다.

등산 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 군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여부 확인 후 입산하고,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개화면, 분리배출 실물 전시회 개최

부안군 개화면(면장 위영복)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군 최초 '청정개화, 분리배출 실물 전시회'를 개화면사무소 1층에 선보인다.

재활용 가능·불가능 품목 실물 30여점 및 품목별 분리수거 포스터 10여점 등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혼동하기 쉬운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한다.

그밖에도 아이스팩, 투명 페트병 수거할 자체 설치를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및 해당 품목의 수거율을 높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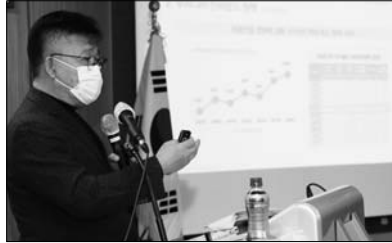
앞으로 이를 활용한 마을별 분리배출 교육 및 현수막 설치, 상가 방문 홍보 등을 통해 자원순환 실천운동으로 적극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영복 개화면장은 "이번 전시회가 면사무소에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하고 가정, 마을, 지역사회 내에서 분리배출 문화가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첫걸음이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힐링과 치유의 명소 '고창'

김상태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 초청 관광정책 방향 특강

전북 고창군이 1일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 전문가인 김상태 박사(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를 초청해 '관광과 힐링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높아진 관광활동 수요에 대응해 지역 관광정책을 돌아보고 특화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태 박사는 "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을 비롯해 청정수산물이나 갯벌 천연고창 선운사 운곡습지 등 문화적 잠재력은 독보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창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고창의 가치를 언급했다.

최근 고창군은 운곡습지·고인돌 유적지가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 선정되고, 고창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등 고창의 생태자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태 박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잇따른 등재와 노을대교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태 박사는 "고창은 지역관광협의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관광주체들의 역량 의지가 강하다"며 "관광자원과 주체들의 의지가 있다면 코로나19 이후 힐링과 치유로 대표되는 관광시장의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오랜 집콕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활력을 되찾기에 최적의 장소다"며 "위드코로나에 발맞춰 고창을 힐링과 치유의 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

접종률 80% '일등 공신' 11월부터 위탁기관 접종 체제로 전환

정읍시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곳이다.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7개월 동안 1차 2만7,127명, 2차 2만7,589명에 대해 백신을 접종해 접종 완료율 80% 이상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예방접종센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했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60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육군 36사단과 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또 정전사고에 대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자가 발전 시설과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냉동고의 고장에 대비해 예비 냉동고도 갖춰 휴식 모를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특히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정읍소방서에서 소방대원과 구급차를 지원받아 신속하게 대응해 큰 문제 없이 운영을 마칠 수 있었다. 시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 후 시

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위탁의료기관 접종 체제로 전환 추가접종(부스터 샷)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종료됐지만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40개소 등을 통해 예방접종은 계속 진행된다.

특히, 정부의 4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 접종과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생해준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속도의 시대 변화와 위기대응 행정혁신"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빠르게 변하는 속도의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행정혁신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1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11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2년 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변화의 속도를 더욱더 끌어올렸다"며 "예전에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의 물리적 환경에서는 열 이상을 보고 집요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행정혁신을 위해 팀원 전체가 공동목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각각의 역할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팀제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무리의 생존을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펠런과 같은 각오로 적극행정 확행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실천 등을 주문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행정행정을 '물정을 잘 살피라'는 정약용의 '찰찰'에 비유하고 "문제해결은 현장에 있고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읍의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는 '제27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제27회 정읍시민의 날' 성황

정읍시민의 장 7개 분야 수여, 축하 공연

정읍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읍의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는 '제27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시는 1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제27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희망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조상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실시 있게 진행됐으며,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ae'를 통해 생중계됐다.

기념식은 내빈소개와 시민의 장 수

여식, 기념사, 축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읍시민의 장 수여식에서는 문화장에 조택수(73) (사)정읍시문화제제전위원회 이사장, 새마을장에 한석홍(69) 초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산업장에 박정욱(63) 황토현대원 대표가 수상했다.

또 공익장에 유영준(56) 참풍은교회 담임목사, 애향장에 장기철(62) (슈타원시스 상임고문, 효열장에 조영희(53) (쥬우성공업 주임, 명예시민의 장에 홍철호(63) (쥬플러스원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시민의 장 수상자에게는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장 패와 메달을 전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식초문화도시 선포 2주년' 기념행사

고창군이 식초문화도시 선포 2주년을 맞아 식초산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행사를 열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식초문화도시 선포 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또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슬로푸드와 식초문화산업 발전 공동프로젝트, 전통음식 발굴과 맛의 방주 등재 협력, 슬로푸드 교육 협력 등 식초를 기반한 식문화 발굴과 계승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슬로푸드와 고창이라는 주제로 감동체 협회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식초산업 육성과 발전 컨퍼런스를 열고 고창 식초 산업화를 위해 전문

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식초 제품개발과 기술이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는 사업 성과와 식초 관련제품을 전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창군 식초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식초요리 전시회는 '고창 소울푸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60여 가지의 식초를 이용한 요리로 꾸며졌다. 전통음식인 '콩나물잡채'와 생활요리에서부터 디저트까지 식초밥상과 생활속 고창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보

여줬다. 코로나로 인해 면연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energy-saving methods. It features a graphic of hands holding a globe and a list of four tips: 1. Turn off power products from the plug. 2. Turn off lights when leaving. 3. Keep indoor temperature at 20 degrees and close windows. 4. Reduce electricity usage during peak hours. The background shows a lush green landscape with trees.